마태오 복음서 8장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마르 1,40-45; 루카 5,12-16)

1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2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1)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천형(天刑) 그 자체로 여겨지던 병,[1] 곧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제외하는 죄의 표지이며,[2] 전염성을 지닌 이 큰 부정(不淨)을 이기신 것이 된다. 또한 깨끗함과 더러움 또는 정(淨)과 부정(不淨) 사이의 경계를 허무시어, 당신께서 수행하시는 사명을 밝히는 표지로 드러내신다.[3]
2) 나병 환자는 단순히 존칭으로 "주님!"이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한 것이다.
3)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며 치유해주심은, 바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루카 7,1-10; 요한 4,43-54)

5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6 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마." 하시자,
8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4]

---

1) 신명 28,27 :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이집트의 궤양과 종기와 옴과 가려움 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28,35 :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치지 못할 악성 궤양으로 너희의 무릎과 정강이를 치실 것이며, 그것은 너희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번질 것이다.
2) 레위 13-14 참조.
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84쪽, 각주 1.
4) 시편, 33,9 :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9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5]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 백인대장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거나, 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권능을 지니신다고 믿는 데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권위" 곧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예감하고 고백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마 군대 백인대장의 말이 궁극적으로는 황제의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하느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6]
2)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백인대장의 이 신앙고백에서, 바로 우리가 영성체하기 전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라는 고백이 나왔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 와,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칫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12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1) 백인대장은 이방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믿음을 고백하는 동쪽과 서쪽 모든 사람의 청은 조건 없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들어 주신다.
2) 믿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 곧 유다인들은 악인들이 벌 받는 곳인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7]
3) '울며 이를 갈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복을 보면서 느끼는 괴로움과 분노를 가리킨다.[8]
4) 치유자이신 예수님과 병자인 종 사이는 거리가 있음에도, 말씀으로 종의 병이 나았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하느님이

---

5) 바룩 3,33-35 : 그분께서 보내시니 빛이 가고 그분께서 부르시니 빛이 떨며 복종한다.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분께서 별들을 부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위하여 즐겁게 빛을 낸다.

6) 앞, 각주 8.

7) 위, 85쪽, 각주 10 참조.

8) 위, 각주 11 참조.

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5) 백인대장과 같은 믿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엄청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신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마르 1,29-31; 루카 4,38-39)

14.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15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9]

1)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시어 병을 고쳐 주신다. 치유 받은 부인은 일어나 시중을 든다. '일어나다.'라는 초대교회 부활 신앙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병에서 일어남'과 '죽음에서 일어남'은 곧 살아남/부활을 뜻한다.[10]

2) "드러누워 있는 것"은 죽음을, "일어나"는 살아남을 곧 부활을 상기시킨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마르 1,32-34; 루카 4,40-41)

16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 "말씀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효력을 내는 것처럼,[11] 예수님의 말씀도 그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는 서실을 드러낸다.[12]

2) 예수님께서는 당시 구마자들과는 달리 권능을 지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치유를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어 병자를 치유해주시는 것은 인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표징이다.[13]

---

9) 마르 9,27 :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사도 3.7-8 :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10) 앞, 각주 12 참조.

11) 1테살 2,13 :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브 4,12 :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12) 루카 4,36 :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이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13) 앞, 각주 15 참조.

17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 예수님은 병들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 '주님의 종'만이 아니시다.[14]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 주심으로써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시는 '구원자'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15]
2)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짊어지시고 치유해주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루카 9,57-62)

18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19 그때에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0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16]

1)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등으로 불렀다. 그러면서도 이 존치들보다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쓰인 표현 가운데 하나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존재이다.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메시아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미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시다.[17]
2)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고난과 박해 곧 십자가를 각오해야 한다.

21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18]

---

14) 1베드 2,24 :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15) 앞, 85-86쪽, 각주 16 참조.
16) 시편 84,4 :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2코린 8,9 :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17) 앞, 각주 19 참조.
18) 1열왕 19,20 :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

22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1) 예수님을 따름은 장례위 의무까지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 만큼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죽은 이들"은 하느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을 가리킨다.[19]
2)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세상일 때문에 포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20] 곧 예수님을 따름에는 철저한 투신이 있어야 한다.
3) 예수님은 인간사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 곧 하느님의 일을 우선으로 선택했을 때, 하느님은 나머지 인간사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마르 4,35-41; 루카 8,22-25)

23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24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21]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1) "풍랑"을 직역하면 "지진"이다. 폭풍이 불어 호수가 요동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지진은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 나타나실 때, 욥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도 일어난다. 이는 또한 세상 종말에 관한 표현이기도 하다.[22]
2) 세상은 종종 풍랑이 이는 호수에 비유된다.

25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26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창세 50,5 : '저의 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서 파 놓은 무덤에 묻어라.' 하며, 저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토빗 4,3 : 그리하여 자기 아들 토비야를 불렀다. 그가 오자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잘 묻어 다오. 그리고 네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 드리고 무슨 일로든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라.

19) 앞, 각주 21.
20) 레위 21,11 : 그는 어떤 주검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21) 요나1,4 :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22) 위, 각주 23 참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1)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써 불신 때문에 얼마나 위협받는지를 보여준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신앙을 주는 빛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
2)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실 때처럼 자연의 힘을 향하여 “주님”으로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바다’는 권능을 지닌 불길한 존재들의 소굴로 여겨졌다.[23]
3)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다.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온갖 풍랑이 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평화가 온다.

27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1) “사람들”은 통상 믿지 않는 이들,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 예수님과 관련하여 믿는 이들의 집단 밖에 있는 이들, 또는 하느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가리킨다.[24]
2) 이분은 바로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시다.

마귀들과 돼지 떼(마르 5,1-20; 루카 8,26-39)

28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30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기르는 많은 돼지 떼가 있었다.
31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32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

23) 위 87쪽, 각주 27.
시편 65,8 : 바다의 노호를, 그 파도의 노호를,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시는 분.
이사 51,10 : 바다를, 그 큰 심연의 물을 말리신 이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건너가도록 당신께서 깊은 바다를 길로 만드셨습니다.
다니 7,2-3 :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24) 위, 각주 28.

1) “때가 되기도 전에”에서 “때”는 모든 마귀가 완전히 힘을 빼앗기게 되는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심은 인간의 이 최종적인 치유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예고하시면서 이교도들의 땅에서도 활동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25)]
2)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시며, 자신들의 멸망의 때를 알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기도 전에”라고 말하는 것이다.
3) 예수님은 마귀들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다.

33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이 모든 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은 방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물리치신 사건을 뜻한다.

34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1)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 난 엄청난 경제적 손실 때문이다. 즉 이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의 회복에 감사하기보다 돼지들이 물에 빠짐으로써 오는 경제적 손실을 걱정했다. 그래서 떠나 주십사 청한 것이다.
2)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된다. 곧 생계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25) 위, 각주 32.